

# 남을 먼저 생각하면, 무재해가 보인다

-서부배합사료주식회사-



▲대표이사정 세진

어느덧 들뜬 코스모스 꽃잎은 땅에 떨어지고 앙상한 씨앗만 남아 다음해를 기약한다.이렇게 이번 가을도 보내려는지 아침부터 차가운 기운이 쌀쌀하게 느껴진다.

사색,고독의 계절 가을에 가을의 서정성을 느낄 시간조차없이 무재해 사업장구 현에 여념이 없는곳이 있다.

지난 9월에 인천 사료업계로써 최초로 무재해 목표 7배를 달성한 서부배합사료(주)(대표이사 정세진)가 오늘 찾은 곳이다.전국적으로 무재해 목표 7배 달성율이 0.1%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으로 이번 서부배합사료(주)가 보여준 쾌거는 많은의 미를 부여한다.

지난 1969년부터 34년간 오직 양계사료 부분에 외길을 걸어온 서부배합사료(주)는 이미 전국 공장단위 산란계 사료 판매물량과 브랜드 파워에서 각각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건실한기업이다.

## 경영자의 안전마인드가 무재해의 밑거름

서부배합사료(주)의 대표이사인 정세진 사장은 안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가지



고있다.

『안전 활동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즉,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보장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독려한다.



이와같이 안전

을 중요시 여기는 데에는 '96년에 서부배합사료에서 한 젊은 근로자가 협착사고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데서 비롯된다. 사고로 젊은 근로자가 마음까지 아파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는 정세진 사장은 우리 회사에서 중시하는 근로자가 다쳐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굳히고, 안전보건활동에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는다.

어느기업이든 안전보전에 있어 우수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근로자와 안전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을 중시 여기고, 근로자가 안전하도록 지원해주는 직장 안전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곳 서부배합사료(주)의 정세진 사장은 그 중 하나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오늘의 무재해 목표 7배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 기본 준수에서 안전사고 예방

서부배합사료(주)의 주요 공정은 싸이로, 분쇄기, 배합, Pellet 등이다. 이 공정에서 발생되는 재해위험요소는 대부분 청소나 정비 작업 중에 발생한다. 싸이로에서는 질식과 곡물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분쇄기에서



의 수리·교체 작업시 기계작동에 의한 협착사고, 사망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배합공정이었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정비작업시 사전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 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담당자인

생산팀 신태하 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싸이로에서는 2인 1조 이상이 한조가 되어 한 사람은 관리감독과 안전작업 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안전보호구와 구명줄을 착용한 후 사전 안전작업 계획에 의거 작업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재해가 수리·교체 작업중에 발생하므로 표지판 부착에 있어서도 철저하다. 표지판 제거는 회사에서 지정한 해당 작업자만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전체 등 위험요소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연동장치가 설치된 덮개를 설치해, 개방시 기계가 자동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안전의 기본은 정리·정돈이며,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에 있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부배합사료(주)에는 각 구역별 청소 실명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직장을 조성하고 있다.

### 기독교 문화에서 안전문화 창출

서부배합사료(주)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매주 월요일이면 전직원이 예배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기독교 문화는 기업경영 문화와 안전문화의 창출로 이어진다. 얼마전 CCEX에서 개최된 축산박람회에 서부배합사료(주)는 다른 기업과 달리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행사를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자사 제품 홍보가 아닌 고객의 상품인 계란 홍보를 위해 “계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족하고 적극 홍보에 나선 것이다. 고객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과 찬사를 받으면서 매출 신장으로까지 이어진 한 사례이다. 이는 영업 수단이라기 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서부배합사료(주)의 기업경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 부분에서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에서 안전은 시작된다.


한 예로, 차량 벌크작업시 추락 위험을 감지한 신태하 부장은 그곳에 안전작업발판과 추락방지용 난간대를 설치한 것도 근로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안전문화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경영문화, 안전문화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서도 볼 수 있다. 복지증진이 잘되는 기업은 자율안전이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서부배합사료(주)

의 복지증진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곳의 차량운전원 대부분은 하도급이며, 계약직이다. 결국 이들은 신분이 불확실한 수직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재해 위험 또한 크다. 그러나 서부배합사료(주)에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대우함으로써 서부배합사료(주)의 무재해를 함께 이룩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창출하는 서부배합사료(주)는 안전의 기본이념인 인간존중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은 무재해 8배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무재해 목표가 필요 없는 안전한 기업인 “초일류 종합식품그룹”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